

“나눔운동으로 자비 제일 도시 가꿔요”

생명나눔부산본부 ‘난치병 없는 행복한 부산만들기’



부산 해동고 강석효 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학생들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부분부장 진인스님에게 헌혈증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올 7월 창립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난치병 없는 행복한 부산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부산지역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생명나눔 탁발 대순례’ ‘100원의 희망 불시 콘서트’ 등을 기획하고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

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창립 이후, 장기기증 서명운동 등 현장에서 게릴라전을 펼쳐 오던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내걸고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행복한 부산 만들기 프로젝트’는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작은

정성을 모아 환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것. 프로젝트의 첫 사업은 ‘생명나눔 탁발 순례대장정’이다.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교계 지도자 100여 명이 함께하는 이 행사는 11월 23일 부산역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을 돌며 난치병 환자에 대한 홍보와 후원 사업을 펼쳐게 된다. 탁발순례는

천 부산지역본부는 이 콘서트에 앞서 부산 지역의 종립 학교, 사찰, 신원단체에 5000개의 저금통을 분양, 난치병에 대한 관심에 불씨를 지핀다.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콘서트는 분양됐던 5000개의 저금통을 모으는 자리인 동시에 부산 불자와 시민의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을 한데 모으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모금된 수익금은 호흡장애와 전신

23일 ‘생명나눔 탁발 순례대장정’ 발대 콘서트 열고 저금통 5000개 분양 해동고, 광주본부에 헌혈증 124장 전달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혹은 분기별 정기 사업으로 고착시켜 시민들에게 난치병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탁발 순례가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확대를 위한 장기사업 이라면 12월 9일 열릴 ‘100원의 희망 불시 콘서트’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기대하는 사업이다. 생명나눔실

마비가 주 증상인 희귀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신종(27세)과 신장병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이 두 달간 모은 헌혈증서 124장을 열소환 사업이 한창인 광주 지역 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051)853-0429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24년만에 화합의 새집 마련

부산불교교육대학

국내 불교교육기관 중 조계종 포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이 개교 24년 2개월 만에 자체 학사를 마련하고 11월 16일 이전 법회를 봉행했다. 1982년 6월 문을 열어 24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850명이라는 포교사를 배출하고 졸업생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이 학사 마련이라는 숙원 사업을 이뤘다. 부산 서면 신동 아오피스텔 5층 전관 240평 규모의 학사에 자체 교육관과 법당 여

기 위해 ‘사단법인 삼보문화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화장을 중심으로 교학원장, 대학원장을 두는 체제 개편으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2006년 7월 결성된 학사이전봉행위원회가 중심이 돼 진행된 부산불교교육대학의 학사는 교육관, 법당, 행정실, 도서관, 동아리연습실, 식당 등의 시설과 최첨단 방송 및 영상설비를 갖

추고 있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36평 규모의 법당인 여래정사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사 이전을 추진하며 진행된 100일 기도에 90% 이상 참석한 13명의 동문들로 구성된 열불봉사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개교 24년만에 자체학사를 마련하고 11월 16일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신행 공간 활용 향후 특수대학 과정 개설 방침

포교사 850명 배출... “전국 최고 명성 지키자”

래정사를 마련한 것이다. 설립 초창기 학사가 없어 예식장, 신도회관 등을 오가며 법회를 보기도 했던 부산불교교육대학이 부산 서면과 부산불교회관 입대 시대를 거쳐 자체 학사 마련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11월 16일 교육관과 법당인 여래정사에서 열린 집안법회 및 개원법회는 흥고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했다. 이날 강선태 학장은 봉행사를 통해 “이하유 전 학장,故 박주천 부학장을 비롯 부산불교교육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결실”이라며 “학사 마련을 계기로 정법 교육과 불법 실천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흥고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교육 관뿐만 아니라 여래정사라는 신행공간도 마련된 만큼 교육과 실천의 양 바퀴를 두루 굴리면서 부산을 넘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학사 마련을 계기로 교육과 수행도량으로 거듭나

회가 맡아 관리하며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부산 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조계종 인가 교육기관 가운데 재가자가 운영하는 유일의 교육기관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우수한 강사진을 자랑하며 16기 주,야간 불교학과 136명,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인 대학원 과정 105명, 교리반 225명이 배움에 임하고 있다. 향후 문교부가 인정하는 특수대학 과정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불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특색 있고 전문화된 강좌를 개설,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까지 증폭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다. (051)711-0108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복지관 등서 노인 자립 도와야”

서부노인학대센터 세미나

부산서서부노인학대센터(소장 김영권)는 11월 17일 양정정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및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산여자대학 사회복지과 황인옥 교수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방안’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황인옥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학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자립심을 증대시켜야 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6회 천태합창제 열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총무 원장 정산)은 국민 대화합을 기원하고 음악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제6회 천태합창제를 11월 11일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 지관전에서 봉행했다(사진).

로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카르멘 전주곡으로 시작된 제6회 천태합창제는 5그룹으로 이뤄진 연합 합창단이 내 마음의 부처, 청산에 살리라 등 10여 곡의 찬불가와 가곡을 열창했으며 이탈리아 성악가 실비아 다로스 와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의 특별공연 등도 펼쳐졌다.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각 지역의 합창단이 하나가 되어 멋진 음악을 만들어 낸 것처럼 이 마음이 더 넓고 높은 곳으로 울려 나가 국민 대화합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한국티벳센터 ‘몽법회’ 성료

한국티벳센터 광성사(주지 도항)는 11월 12일, 13일 양일간 경라라뎃린포체 초창 룹 전승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열린 룹전승법회는 부처님 당시부터 전승돼 오던 ‘룹’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승하는 법회로 경라라뎃린포체의 룹전승이 1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경라라뎃린포체는 부처님 당시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금강경, 능엄주, 신묘장구대다라니, 미타경, 반야심경, 입보리행문, 원각경, 현관장엄론, 중론, 칠십공성론 등을 통역없이 암송해 연습함을 더했다. 천미희 기자

연극으로 만나는 ‘인간 원호’

1978년 창단해 부산의 원로극단으로 통하는 부산메파토리시시스템이 98회 정기공연으로 원호의 인간적인 면모를 집중 조명 한 연극 ‘삼매경’을 공연한다. 14일 시작한 이 연극은 11월 30일까지 불원소극장에서 공연되며 원호 스님의 출생, 성장, 깨달음과 전법의 과정을 인간 원호에 맞춰 선보인다. 부산교육대학 심상교 교수가 극작을 한 ‘삼매경’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6시에 공연된다. 011-559-5119 천미희 기자

미타선원, 100일 기도·참선 함께 해오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기도와 참선수행을 병행하는 100일기도를 봉행한다. 11월 25일부터 2007년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100일 기도는 하림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직접 100일 기도에 동참해 신도들의 신심을 북돋운다. 기도는 매일 새벽 4-5시 기도, 5-6

시 참선, 오전 10-11시 기도, 11-12시 참선, 오후 2-3시 300배, 3-4시 참선, 저녁 7-8시 한글 금강경 독송, 8-9시 참선으로 진행된다. 한편 미타선원은 동안겨 결제를 맞아 11월 25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동안겨결제 옹맹정진법회’를 개최한다. (051)253-8687 천미희 기자

海印寺 高麗刻板 「사간판 인경본」 보급 불사 안내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가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해인사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불자들에게 한정 보급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8종이 국보 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海印寺刊板이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관전인 범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목판을 흔히 ‘해인사간판(海印寺刊板)’이라 불렀습니다. 이 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세긴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각 「사간판 인경본」 10질 한정 보급!!



| 80화엄경변상도(주본) | | | | 시왕생칠경 | | | | 대문금강경 | | | | 인진보감 | | | |
|--------------|--------|-------|----------|-------|----|------|----|-------|----|-------|--------------|--------------|----|-------|-----------|
| 경이름 | 종권 | 판매가 | 비고 | 경이름 | 종권 | 판매가 | 비고 | 경이름 | 종권 | 판매가 | 비고 | 경이름 | 종권 | 판매가 | 비고 |
| 모범연화경 | 7권 | 100만원 | | 능가경화역 | 4권 | 50만원 | | 대문금강경 | 1권 | 50만원 | | 대문금강경 | 1권 | 100만원 | 국보 206-20 |
| 인천보감 | 상·하 2권 | 200만원 | 국보 206-9 | 심부주 | 4권 | 50만원 | | 시왕생칠경 | 2권 | 200만원 | 1권 국보 206-10 | 80화엄경변상도(주본) | 1권 | 200만원 | 국보 206-14 |
| 경덕전등록 | 10권 | 200만원 | | 대승능가경 | 1권 | 50만원 | | | | | 1권 보물 734-3 | 80화엄경변상도(진본) | 1권 | 100만원 | 국보 206-13 |

입금계좌 : 농협 843174-51-013471 (예금주 : 해인사)

구입문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 전화 055)934-3095 / 팩스 055)934-3096

